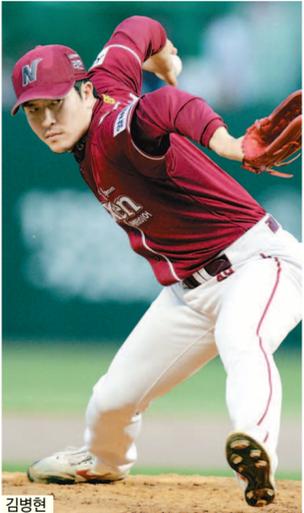


# 핵심 김병현, 이젠 불펜으로 뜬다



김병현

## 베이스볼 브레이크 | 열흘 만에 1군 복귀...보직 전격 전환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보다 마무리가 위력 김시진 감독 "당분간 중간 기용 후 점점 불펜 컨디션 관촬으면 선발 복귀 할 수도"

열흘 만에 복귀한 넥센 김병현(33)이 불펜으로 전격 전환한다. 김병현은 12일 1군 엔트리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2일 1군에서 제외된 뒤 막 열흘 만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발이 아니라 불펜에서 등판을 대기한다. 넥센 김시진 감독은 "당분간은 중간에 기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불펜으로 쓴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점점은 충분히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젊은 불펜에 '경험' 수혈

넥센은 나이트~강윤구~김영민~한현희~장효훈으로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

을 구축하고 있다. 부상으로 이탈한 벤 헤켄이 다음 주 복귀하면 선발지가 더 많아진다. 오히려 문제는 불펜이다. 최근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날려버리는 일이 잦았다. 김시진 감독은 "중간에 어린 투수들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불넷을 납발하는 경향이 보였다. 조금 더 경험 있는 선수를 기용하기 위해 김병현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병현 역시 코칭스태프와 불펜 전환에 대한 교감을 마쳤다. 정만태 투수코치가 의사를 묻자 "팀을 위해서라면 보직을 가릴 때가 아니다"며 흔쾌히 응했다. 다만 김 감독도 아직 김병현의 투입시기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마무리 바로 앞에 셋업으로 올리느냐, 동점이나 1점 승부 타이밍에 올리느냐, 아니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에서 올리느냐는 지켜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 불펜 적응은 연투능력이 관건

메이저리거 김병현은 선발보다 마무리로 더 위력을 발휘한 투수였다. 이번 변화는 장기적으로 김병현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시진 감독은 "불펜에서 관촬으면 다시 선발로 합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연투능력에 믿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병현을 선발로 투입했던 이유 역시 등판 후 충분한 회복시간이 필요해서였다. 김 감독은 "1이닝에 15개 정도 던진 후 하루 쉬고 다시 던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이상이 걸린다면 불펜으로 오래 쓸 수는 없다. 일주일에 2회 정도밖에 등판할 수 없는 불펜투수는 끈기하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2군에서 9일 삼성전, 11일 KIA전에 2차례 구원 등판해 일단 첫 번째 점점을 마쳤다.

목동 | 배경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 "사인 훔쳤다면 감독직 내 놓을 것" 삼성 류중일 감독, 11일 LG전 논란 강력 부인

"이젠 그런 야구할 시기는 지났다. 사인 훔치기는 내가 하지 못하게 한다."

삼성 류중일 감독(사진 왼쪽)은 12일 대구 LG전을 앞두고 전날 경기 도중 발생한 사인 훔치기 논란에 대해 "절대 그런 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직을 걸고 사인 훔치기를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전날 경기 3회말 2사 1·2루서 신명철 타석 때 LG 선발 투수 김광삼은 2루 쪽으로 돌아보면서 계속 "하지마"를 외쳤다. 그 이전 2루주자인 삼성 최형우를 놓고, LG 유격수 오지환과 2루심을 맡은 이기중 심판위원 사이에 얘기가 오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러자 이영재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킨 뒤 마운드에 김광삼과 오지환을 불러 모아 상황을 정리했다.

류 감독은 12일 취재진에게 "우리는 절대 사인을 훔치지 않는다. 내가 못하게 한다"고 말한 뒤 맞은 편 덕아웃을 방문해 LG 김기태 감독에게도 같은 말을 전달했다. 김 감독도 이에 대해 "류 감독님 성향상 그렇게 할 분이 아니다"며 웃어넘기면서 "우리 팀 투수코치와 배터리코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 사인을 바꾸면 될 일이다. 우리 팀 선수들에게도 주자로 나가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 김재호가 손시헌에 전화 못한 까닭? "친한 형인 동시에 경쟁자...마음 약해질까 봐 참아"



"차마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 약해질까 봐."

두산 김재호(27·사진)는 손시헌(32)을 친형처럼 따른다. 같은 포지션인 까닭에 주전-비주전으로 나눠지지만 김재호는 늘 "(손)시헌이 형이 고생한 만큼 잘 돼서 기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올해 손시헌이 발목 부상으로 2군에 내려간 뒤 단 한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을 테지만 꼭 참았다. "캠프 때 잠깐 단으로 온 팬이 (손)시헌이 형과의 포지션 경쟁에 대해 묻더라고요. 워낙 친해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준비 잘 해서 기회가 오면 잡겠다'고 약속했어요."

김재호는 6월 28일 목동 넥센전부터 선발 출장하며 손시헌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수비는 정평이 나 있지만 문제는 타격이었다. 그러나 9일 대전 한화전부터 3경기 동안 12타수 6안타 2타점 5득점의 맹타를 휘둘렀고, 11일 잠실 SK전에선 결승 2타점 3루타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재호는 1군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손시헌의 소식도 반겼다. "전 여전히 형이 와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잘 할 거예요. 그게 두산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 추신수, 보스턴전 무안타 2사사구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12일(한국시간) 프로 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홈경기에서 3번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2사사구를 기록했다. 이를 연속 무안타로 시즌 타율은 0.287까지 떨어졌다.

### SK-두산·한화-넥센전 경기 우천 취소

12일 열릴 예정이던 잠실 SK-두산전과 목동 한화-넥센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일정으로 재편성된다.

### KBO총재배 전국중학야구대회 내일 개막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포항시, 대한야구협회(KBA)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KBO 총재배 전국중학야구대회가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포항에서 열린다.

### KIA, 어린이야구교실 참가자 모집

KIA가 19일 광주 무등경기장 호승관 등에서 제3회 KIA 타이거즈 어린이야구교실을 운영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번 야구교실은 13일부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신청은 이메일(lovekiatigers@hanmail.net)로 하면 된다.

### ■ 엔트리노트 (12일)

- 등륙=김병현 박종윤 이정훈(이상 넥센)
- 말소=김상수 이태양 임창민(이상 넥센)



12일 대구 LG-삼성전 3회초 갑작스레 내린 소나기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대구구장 경기진행요원들이 방수포를 덮고 있다. 대구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erine07

**‘벌떡 벌떡’**  
노인도 밤새도록 우뚝 세우는

1.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를 획득한 제품  
2. 성기능 장애 극복을 위한 음경 보형물  
3. 고개속인 남성의 적 시들고 빠르고 작아 남자의 자질을 상실한분께 약이나 수술없이 마음먹은 대로 오래도록 세우며 두배로 크게 하는 신제품이 출시 되었다. 사용즉시 불끈 일어서며 장기간 지속되니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크기도 길어도 시간도 마음대로... 보지않고 구매해도 피부같은 촉감에 고장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힘없고 맥뭉추는 남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신 신제품**

40~80대도 용솟음치는 **‘용트림’**  
(식약청 허가제품)

“그동안 이것저것 다 써보아도 속은 기본으로 실망만 하셨다면”  
하늘이 내린 선물 “용트림”의 신특력에 깜짝 놀라실 것 입니다.

상담 1588-4101, 1577-4101  
010-6306-7070, 010-7102-7070  
전화 010-8558-4114, 010-8952-4114

**불뚝팬티**  
습하고 축축한 고개속인 남자들이 찾는 속옷

우리 몸은 36.5°!!  
음경따로 고환따로 32.5°!!

3개부분 발명특허출원

한번 착용해 보면 중독되는 속옷~

목, 삼배, 바이오 세라믹의 조화로운 만남 음경과 고환이 따로 분리되어 습하고 땀이 차는 것을 막아주고, 땀 냄새 제거 등에 탁월한 도유를 주며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랜시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속옷으로 고개속인 남성들도 20대의 힘을 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글로벌홀소싱

한 세트 3매(사은품:팬티1장+링+성인소설 1권)

상담 1577-4101, 1588-4101  
전화 010-7102-7070, 010-6306-7070

**파트너**

외롭고 고독한 남성들만이 선택하는 여우 같은 파트너  
매일 매일 즐거움과 만족을 드립니다. (귀한선물도 드립니다.)  
후대하기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과 유사한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외향선원, 해외 근로자, 장애인 독신자들에게 절찬리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글로벌 홀소싱

상담 1588-4101, 1577-4101  
문의 010-6306-7070, 010-7102-7070

소백산 정기를 받는 산양산삼  
7년근 산삼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값이 싸서 가짜가 아니냐구요?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 합격증이 보증해 드립니다.

산삼은 예로부터 신비의 영양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 속의 독소를 없애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를 생성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적혀있다. 또 심장, 폐, 간, 신장등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켜 만성피로나 무력감 같은 증상을 개선시켜주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산삼은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것을 보호해주고, 강한 것을 내려주어 면역력이 강한 체질로 개선해준다. 혈당치를 저하시키는 아드레날린과 인슐린 생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으며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면서 간기능을 회복하고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산삼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산삼을 항암제와 병용하면 항암제 효과가 증진되고 면역기능의 회복효과 또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삼에 함유된 사포닌은 피부미백과 주름방지는 물론 40대 이상 기력증진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천혜의 건강식품에 부족함이 없다.  
효도선물로 잊지 못할 선물

1577-4101, 1588-4101  
010-7102-7070, 010-6306-7070